

지역 소식통

군의원 국외연수비 반납

고창군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 연수비 등을 반납하기로 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고통 분담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 국외연수 여비 3,000만원과 의회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000만원을 포함한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결산검사위원 위촉

정읍시의회는 지난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익규 의원(대표 위원)과 오종태, 홍창호, 김성수, 이진식 등 재직 및 회계분야에 경험 많은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5월 12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9년도 정읍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감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연안정비사업 선정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사업대상지로 변산면 격포리 격포지구(격포해수욕장) 등 4개 지구(격포 모항, 위도 정금)가 선정됐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식과 침수 등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호안시설을 철거하고 모래사장 안빈작업과 유수공간을 조성 등 대안위 수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 지구는 총 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격포지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연지시장 확 바꾼다

### 시설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 갖고 의견수렴... 5월 착공 3년간 사업비 37억 원 들여 쾌적한 전통환경 여건 조성

정읍시가 지역 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바람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지시장 시설현대화와 기능보강에 나선다. 연지시장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전통환경 여건을 조성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가 입면과 통로바닥 정비 ▲이케이드 설치 ▲화장실 개보수와 복합문화공간 설치 등을 실시해 노

후·차세대 연지시장을 새롭게 정비한다. 올해는 먼저 총 9억 원을 들여 주동로 상가 입면정비, 주간판 및 문주 제작, 도로포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연지시장 변영회 사무실에서 '2020년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연지시장 문문성 변영회장을 비롯해 상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을 듣고 디자인과 실시설계에 대해 용역사인(유)디자인 칸의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이들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는 공사 시행 시 불편함 등에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는 이날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설계안을 확정하고 사전 절차이행을 거쳐 오는 5월 공사에 착공 9월 중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연지시장 변영회 문문성 회장은 "침체되어 가는 연지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변영회에서도 공사 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추진을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재래시장·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27억 원을 들여 특화거리 조성·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특화업종 창업지원 등 연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올 첫 모내기

#### 부안면 이강목씨 농가 추석즈음 햅쌀 기대감

고창군에서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가 시작됐다. 고창군의 첫 모내기는 지난 24일 부안면 이강목씨 농가에서 이뤄졌다. 이날 모내기 벼는 밤낮 좋다는 평가를 받는 진광벼로 오는 9월 초순에 수확해 추석즈음에 햅쌀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에서는 이번 첫 모내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조생종 벼 모내기가 시작되고, 민생종 벼는 5월 중하순부터 시작해 6월 중·하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강목씨는 "매년 조기 이앙하고 있지만 요즘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추워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선을 다해 농업에 전념해 풍년농사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고창군의 첫 모내기는 지난 24일 부안면 이강목씨 농가에서 이뤄졌다. 이날 모내기 벼는 진광벼로 추석즈음에 햅쌀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을 위해 올해 친환경 쌀 전문 가공·저장시설 신축사업, 친환경브랜드 쌀 수매장터급 지원사업, 농가조직 위탁 교육 등 7개 사업에 48억92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첫 모내기 현장을 찾아 "올해 풍년 농사 기원과 함께

앞으로도 고창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에서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영농자재 지원, 육묘장 지원 및 각종 농기계 보급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감염병 예방 빈틈없는 방역

#### 해충 방제 병행으로 실시

정읍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과 위생 해충 방제를 병행으로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는 물론 매개 모기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모기 성충과 유충의 방제를

위한 집중적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방역가동반 2개 반 8명을 편성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연구소독과 초미립자 분사소독, 살균소독을 하고, 모기 유충 서식처인 물웅덩이, 하수구, 복개천 등에 각종 위생 해충 박멸을

위한 하수구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소독수 6명을 활용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산책로 등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집단감염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충 방제를 위해 감염병 취약지에 설치된 해충퇴치기 205대를 4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을 위한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했다.

### "의료진 코로나 헌신 감사"

#### 유진섭 정읍시장,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동참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을 위한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 시장은 SNS를 통해 진행 중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송고한 희생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했다. 유 시장은 정읍시 공직자들과 함께 왼쪽 손바닥을 받침대 삼아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수어 동작의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이 같은 포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의 의미를 담은 수어 동작이다. 또한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순간에도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눈길을 모으고 있는 유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개월간 급여의 30%를 기부하고,

직접 방역 활동에도 동참하는 한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만들고 제안한 국민 참여형 응원 캠페인이다. 대한민국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캠페인 이름을 '덕분에 챌린지'라고 지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과 노력으로 코로나 완전 종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불가사리 수매... 27일부터 액비 생산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불가사리자원화센터는 변산 연안에 서식하면서 무차별적인 포식성으로 조업에 큰 피해를 주는 해저생물인 불가사리를 27일부터 불가사리 액비 생산을 위해 구입하기로 격포어촌계, 대항어촌계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신축되어 올해부터 가동되는 불가사리 자원화센터에서는 68톤의 불가사리를 공급받아 연 130톤의 불가사리 액비를 제조하여 부안군과 고창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부안군 불가사리 수매단가는 kg당 700원이며 수매 적용이 안 되는 통발

로 포획한 불가사리는 별도 어촌계와 계약해 구입하기로 협의했다.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불가사리 액비 액비의 상표명은 '불팜'으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됐으며 기존 2~3년 자연 발효를 통해 농가에서 자가 사용하는 액비와 달리 이물질과 염분, 칼을 세척하여 부패균을 차단하고 유용 미생물 활용 유기산을 넣어 EM균으로 발효하여 10일의 단기간에 생산된다. 또한 냄새가 적고 질소와 수용성마그네슘, 수용성석회의 함량이 높아 화훼비료를 대체하는 자연발효 비료로 유기농업 재배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